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즉물성'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pressive Trends of 'Sachlichkeit' in Architectural Design

배준현* / Bae, Jun-Hyun

전명현** / Chun, Myung-Hyun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Sachlichkeit', as essence of materiality that architectural building materials process, which forms the physical basis for actual building.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es that deal with various elements that compose architecture, but the emphasis seemed to be concentrated on the meta-physical discussion concerning formal concept. An issue on sachlichkeit as materiality does not necessarily mean to mention production process of architecture, rather it is aim of this study to seek possibility to find elements that generate architectural form, through interpreting meaning of materials as substructure generator to make architectural possible.

Architectural act can be defined as a process where physical material in life is composed into architecture by the hands of architect. Material used in this process basically has neutral characteristic, so 'Sachlichkeit' solely depends on the intentions of architects. This study interprets the intention of architects through the frame of modern-basis proposed by Hilberseimer, and a result architecture is defined as an object projected by architect's subjectivity.

키워드 : 즉물성, 구축성, 물성, 물질, 재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현대건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두개의 경향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해체건축이후 형태구성의 극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고, 둘째는 근대건축을 재고하는 경향이다. 전자의 경우는 해체건축의 연장선에서 발생된 fold개념에 의해 극단적인 조소적 형태를 추구한다. 유연한 곡선curvilinear과 다면형manifold을 형태적 특성으로 하는 이러한 경향은 Peter Eisenman, Frank O. Gehry, Rem Koolhaas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양식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후자는 프랑스 및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을 중심으로 미니멀리즘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의 관계라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전자는 직전의 기술지향적 건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해체건축까지의 유행적 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

단으로, 근대건축의 형태적 이론을 재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향 모두 결국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연속과 단절의 양극화된 극단적 행태를 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재료의 본질적 속성인 물성과 이에 따른 표현특성인 즉물성을 중심으로 근·현대건축의 표현경향을 고찰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상기한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이에 따른 근·현대건축의 경향 파악으로 전개한다. 우선, 2장에서 즉물성의 개념을 고찰하게 되는데, 용어의 정의를 통해 보편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철학적·예술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건축적 표현경향으로서의 즉물성을 고찰하게 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정립된 개념고찰과 건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표현특성으로서의 즉물성을 파악하고, 건축재료와 관련된 장식, 구조 등을 통해 즉물성의 건축적 의미를 고찰한다. 주로 근대건축의 형성기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 지는데, 건축이론가 힐버자이머의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한 근

* 정회원, 동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대건축이론과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즉물적 사고를 통해 즉물적 표현의 양상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현대건축의 특정 양식이 아닌 건축 전반에 걸쳐 즉물성의 표현경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즉물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전 단계로서, 4장의 고찰은 개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2. 즉물성의 개념

2.1. 용어의 정의

독일어인 'Sachlichkeit'는 영어로는 'Objectivity'로 번역되며, 객관적인, 공정한, 본질적인, 실용적인, 장식이 없는, 감정이 없는 등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Sachlich'에 명사화 접미사인 'keit'가 붙어서 구성되고, 객관성, 즉물성, 실용성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라 그 개념을 파악하고 건축에서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즉물성의 개괄적인 개념은 사물의 본질로서 포착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 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보편적 의미로 정의된다.

2.2. 타 분야에서의 개념

(1) 철학적 개념 - 물질

철학적인 의미에서 즉물성은 대상의 성질을 의미하는 대상성(objectivity)에서 찾을 수 있다. 대상object는 주제subject에 대립하는 것으로, 주제의 물리적 활동이나 인식활동이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에는 관념적 대상과 물질적 대상이 있는데, 서로는 원칙적으로 다른 질을 지닌다. 그러나 관념적 대상은 물질적 대상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물질이란 철학적 용어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실체, 즉 물리적 현상의 항존적 기체 혹은 물체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총칭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물질개념은 형상에 대비하여 형상보다 낮은 단계, 보조개념 혹은 소극적 개념을 가리킨다. 그에 의하면 질료(matiere)를 제거하고 형상만 남은 상태를 특별히 1차 질료라하여 이는 신이나 이데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형상이 제거된 채 질료만 남게 된 것을 2차 질료라하여, 이는 가치의 낮은 단계, 저급한 상태로 보았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은 물질로부터 생겨나고 물질로 구성되며, 이런 점에서 물질은 모든 사물의 기체substract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물질은 아무런 속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잠재적 가능성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형식과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실현된다. 물질은 본질상 수동적이며, 그 구체적인 규정들을 능동적 원리이고 원동자인 형식에 의해서 비로소 획득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과 형식, 물질과 운동을 이원적으로 분리했는데,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후 서양철학사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2차질료가 물질이라는 자격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²⁾로 볼 수 있다.

헤겔은 물질을 추상적인 것, 즉 덩어리진 무거운 질료, 어떤 특정한 형체가 될 수는 있어도 스스로 구체적이고 참된 정신적 형상이 될 능력이 없는 것³⁾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대적인 물질개념의 형성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물론⁴⁾을 통해 강화되기 시작한 반면, 관념적인 물질개념은 예술에 있어서 여전히 정체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칸트⁵⁾가 원물질⁶⁾을 언급하고, 바슐라르가 물질의 동상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시각예술에 있어서 질료는 물질개념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단순히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재료, 형상이 실현될 가능성으로서의 낮은 단계로만 머물러 있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이 인식의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적어도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출현 이후부터 이다.⁷⁾ 아방가르드에 의해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속성 즉, 물질성에 근거한 표현이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을 위한 물질성을 즉물성으로 파악하고, 그 표현 행위를 즉물적 표현이라 규정한다.

(2) 회화적 개념 - 신즉물주의

신즉물주의Neue-Sachlichkeit는 정치적으로는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주의에 조응하는 미술사조⁸⁾이다. 여기서 '즉물'이란

2)데카르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물질이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3)G. W. F. Hegel, 두행숙 역, 헤겔의 미학III, 나남출판, 1998, p.52

4)칸트의 물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론적 원리인 초월존재와 물질존재에서의 주제적 유물론의 논리구조에서의 물질존재란 단순히 사유로부터만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부터도, 즉 동물의 감각도 포함한 의식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존재이다. 더불어 그것은 동물도 포함한 제삼자의 외적 기관의 대상이고 더욱이 감각과 사유에 의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에 대하여 초월존재에 있어서의 초월이란 특히 합리적 사유로부터의 초월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森田成, 민혜철 역, 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 거름, 1985

5)칸트에 이르러 물질은 가능성 경험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며 물자체는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극단적 관념론자들은 물질이라는 존재 자체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물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질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개별적 대상이며 정신의 근원을 여기에 둔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감각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에 모사되거나 의식에서 독립하여 따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서 물질을 인식하고 있다. 박영욱,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p.10

6)칸트의 원물질이란 물자체(Ding an sich)를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길가의 돌과 발고랑의 흙덩어리도 사물이고 항아리도 사물이고 길가의 생도 그렇다. 또한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 즉 현상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사물로 보았으며 이를 물자체라 불렀다. Martin Heidegger, 오병남 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8, p.19

7)박영욱, 앞의 책, 1996. p.9

8)만하임(Mannheim)의 시립미술관장 하르트라우프(Gustav Friedrich Hartlaub)에 의해 1925년에 기획된 전시회 명칭에서 유래된 신즉물주의는 그의 정의에 따르면 "표현주의 이후의 독일미술을 대변하는 구상회화"로써 카놀트를 비롯한 베르만(Max Beckmann), 디스(Otto Dix),

1)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8, p.202

선입견이나 주관의 개입없이 사물자체를 직접 파악한다는 뜻인데 회화에 있어서의 신즉물주의란 즉물적으로 파악한 사물(9)을 명확하게 화면에 재현(10)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의 즉물적인 파악을 뜻하는 신즉물주의는 현실적 존재의 성격을 가지며 실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의적세계와 관계하는 인간 삶의 진실성을 뜻한다.(11)

회화에서의 즉물성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주체의 현상적인 측면과 색채의 강렬한 그리고 바탕과 화필 질감의 솔직한 표현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1> Max Beckmann, The Iron Footbridge, 1922



<그림 2> Franz Radziwill, La Greve, 1931

2.3. 건축적 개념-재료의 물질성

즉물적 개념에서, 전통적인 대상 개념을 버리면서 생겨난 새로운 대상성으로서의 즉물성이란 외면적으로 이전의 모든 부수적인 것을 배제하는 형태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새로운 형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성을 배제하고 사용된 재료의 실재성(12)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공업재료일 수

그로스(George Grosz), 슈림프(Gustav Schrimpf), 렌크(Franz Lenk), 그로스 베르크(Carl Grossberg), 레더사이트(Anton Raderscheidt) 등의 구상회화 작품경향을 지칭하였다. 로(Franz Roh)는 '마술적 리얼리즘(Magischer Realismus)'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신즉물주의와 같은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단지 강조점만 다르다. 장영, 알렉산더 카를트의 신즉물주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1

9)하이데거는 형식화된 질료로서의 사물을 기술하면서, 작품에 있어서의 사물적 측면이란 명백히 사물을 구성하는 질료라고 말한다. 또한 질료는 예술적 형식화 작업의 토대요, 기반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사물은 항구성의 개념으로 파악되며 질료와 형식의 결합에서 생겨난다.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998, pp.27-28

10)독일 신즉물주의 회화의 형식적인 특징은 구상성을 비롯하여 명료한 윤곽, 구성적인 배치 등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1차대전전에 유행한 표현주의가 지닌 주관성, 환상성에 입각한 추상주의적인 사조에 반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신즉물주의는 1920년대 국제화단의 구상화 유행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신즉물주의와 같은 국제적인 구상화조류에는 피카소, 드랭 등의 프랑스 고전주의, 이태리 형이상회화파(Pittura Metafisica) 등이 있었다. 장영, 알렉산더 카를트의 신즉물주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1

11)진임신, 신즉물주의 회화에 나타난 인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15

12)재료의 실재성이란 합목적적 의미를 말한다. 헤겔은 그의 저술 「헤겔 미학」에서 재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목적적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도 있고 전통재료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 이외의 것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건축적 개념에 있어서 물질성은,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물질의 표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중립적' 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물질내부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의미(13)한다.

공학적 생산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건축형태의 생성은 미학적 숙고나 초월론적인 개념대신 합리성, 경제성 등과 같은 대상자체의 속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강조하는 건축의 유물론적인 실천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형태생성기반으로 물질적 차원, 즉 재료에 관계된 속성을 형태생성에 응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물질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발명적, 디자인 지향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공학적 접근은 물질에 대한 지식의 확대에 따라서 형태언어를 풍부히 하는 한편, 물질적 보편성을 실현하는 도구로 적용된다.(14)

건축적 개념으로서의 즉물성은 앞서 서술한 철학과 회화에서의 즉물성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물질에 근거하는데, 이는 물질 자체가 재료의 형식으로 건축형태 구성의 본질을 이루며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형태구성의 이원론적 전개

건축가가 개개의 건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건축가가 갖고 있거나 또는 표현하고자하는 건축이념(관념적 대상)은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물질적 대상) 및 그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 및 외부형태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대상성은 우연적 특수성을 필연적 보편성을 갖게 한다.(15) 이는 형태구성의 전개과정으로 볼 때 <표 1>와 같이 이원론적 대립구도로 표현할 수 있다.

주관적인 건축가의 표현의지는 목적에 따른 재료선정과 적

"나무는 그 자체에 이미 규정된 형태가 들어 있으며, 대개 직선적이거나 반듯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어려운 가공을 할 필요가 없기등이나 활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직각이나 예각, 둔각으로 잘라져 각진 기둥이나 버팀목, 대들보, 천장이 된다. 그에 반해 돌은 원래부터 확고하게 정해진 형태를 지니지 못하며, 나무에 비해 형체가 없는 덩어리이므로 이는 목적에 맞게 개별화시켜 나란히 세우거나 위에 걸치거나 다시 결합되게 가공되어야 한다. 나무는 이미 그 자체 온전하게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용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돌은 그런 식으로 이용되기 이전에 여러번 작업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돌은 그 덩어리가 거대할수록 더 많이 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원래 대개 상대적으로 형태가 없으므로 거기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가공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돌은 상징적 건축은 물론 낭만적 건축과 그 환상적인 형태에 적합한 질료로 제공된다. 반면에 나무는 그 동치가 자연적으로 반듯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저 고전적 건축의 출발점이 되는 엄밀하게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재료를 다루는데 더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G. W. F. Hegel, 앞의 책, 1998, pp.88-89

13)박영옥, 앞의 책, p.10

14)최아사, 건축형태생성에 내재된 구조적 사고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9, pp.152-153

15)김태경, 건축표현에 있어서 즉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12

용으로 객관성을 구하며 이에 따른 형태는 관찰자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재료의 합목적적 사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형태의 구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재료는 그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즉물성의 표현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표 1> 건축형태구성의 이원론적 대립관계

건축형태의 구성		
관념적 주관성 무연성 특수성 건축이념	↔	물질적 객관성 필연성 보편성 건축재료

3. 즉물성의 건축적 의미

3.1. 재료의 즉물적 표현과 구축적 표현

각종 재료에는 이에 맞는 공법이 있고, 이 공작법으로 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형식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항상 이와 같은 특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재료의 즉물적 적용에 따른 구축적 표현에 관한 해석이다.

중력에 저항하여 형태를 생성하려는 건축적 의지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축성, 즉 축조성의 개념에서 건축은 의지가 담긴 예술적인 것보다는 공리적 성격의 구축물, 즉 물리체로서의 건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료의 물질성과 기하학적 질서에 근거한 실증적인 미는 구조적¹⁶⁾이다. 구축적 표현은 재료의 물성에 근거하여 그 구조적 가능성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즉물적 표현의 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구조적 가능성은 역학적으로 성립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비역학적인 구조 즉, 자립된 조적체, 전체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벽 등도 포함한다.

3.2. 재료의 합목적성에 관한 근대건축 형성기의 이론 고찰

재료의 합목적적 이용에 관한 이론은 칸트의 물질인식 이후 건축에서 활발하게 정립되었으며, 이러한 재료의 물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근대건축 성립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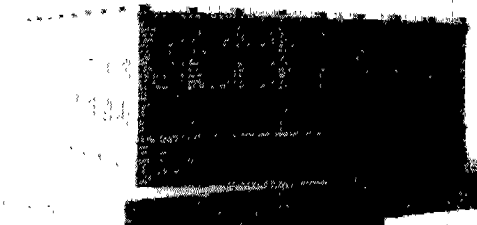
19세기의 위대한 이론가 중 한 사람인 쟈퍼는 건축작품을 응용미술과 같이 현실적인든 상징적이든 간에 그것이 제공하는 목적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와 같은 작품은 또한 그것을 실행하고 제조하는 데 사용한 재료와 필요한 도구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을 결정하는 이러한 인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므로, 건축은 각각 다른 표현, 다른 양식을 낳게 된다. 그가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예술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수와 법칙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훨씬 부족한 낡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그는 예술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¹⁸⁾하고 있다.

과학주의적 건축미론을 주장한 쟈퍼는 그의 책 「양식론」에서 건축적 상징은 사용목, 재료, 기술로부터 생긴 '의미가 있는 형태'를 가리키며, 이 '의미가 있는 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리글은 쟈퍼의 유물론에 반대하여, 그의 기계적 개념 속에 결여되어 있는 정신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목적론적 이론을 전개하였다. 쟈퍼는 건축작품이 목적, 재료, 기술의 결과라고 믿었던 반면, 리글은 건축작품이 목적, 재료, 기술과의 갈등 속에서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의식적인 조형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목적, 재료, 기술은 창조를 자극하는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¹⁹⁾

셀링과 헤겔의 영향을 받은 쉐켈은 건축의 근본원리를 합목적성으로 보고 이를 통해 건축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쉐켈의 합목적성은 평면과 구조의 합목적적으로, 이에 적합한 재료의 선택과 결합방식을 주장하였다.



<그림 3> K. F. Schinkel, Bauakademie Model, 1836
Bauakademie는 건축학교로서, 정방형 Grid의 정방형 평면으로 내부에 정방형 편심광정을 갖는, 당시에는 획기적 소재인 적벽돌을 사용한 Schinkel의 후기 걸작으로 기술주의기 최고의 작품이다.

비올레 르 두크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용과 역학적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형태는 재료 자체의 기능이 표현되어야 하며, 각각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를 구비하여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러스킨 또한 「건축의 7등」 중 두 번째, 진실의 등을 통해, 재료·구조·시공상의 허위를 배척하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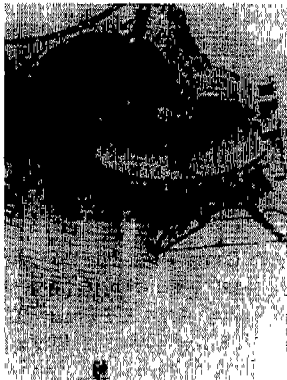
16)역으로 양식의 재현으로서의 자의적인 미는 비구축적(atectonic)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아사, 앞의 책, p.156

17)井上充夫, 임영배 외역, 건축미론, 도서출판 국제, 1994, pp.141-267

18)Ludwig Hilberseimer, 윤재희 외역, 근대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6, p.43

19)L. Hilberseimer, 위의 책, 1996, p.45

필러 또한 과학적 미론의 입장을 취하며, 재료의 우수성이나 시공의 정밀함을 건축미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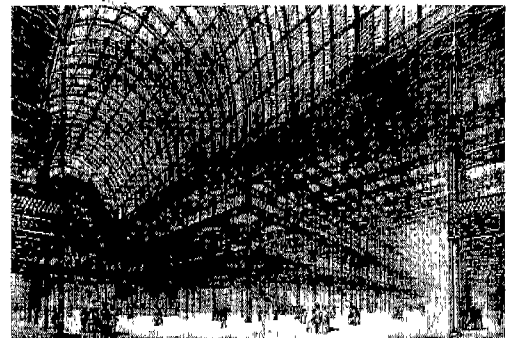


<그림 4> E. Viollet-le-Duc, 주철구조에 의한 'Great Hall'의 공률, 1864

비올레 르 뒤크는 건축과정에 합쳐되는 새로운 형태는 고딕건축과 마찬가지로 재료와 구조가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새로운 재료에 적합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Architecture : Its Roots and Trends)」에서 근대건축은 19세기의 건축적 상황을 근대건축의 출발점으로 보며 새로운 양식은 그 시대의 정신과 물질의 힘, 사용되는 재료, 구조의 가능성과 응용성, 그리고 인간의 특수한, 즉 정신적 요구와 물질적 요구²³⁾ 등의 표현이라고 기술²⁴⁾하고 있다.

그는 19세기 절충주의가 몰락하는 시기에 있어서 원시주의(Primitivism), 순수한 건축 등의 전개를 통해 건축의 본질적 가치²⁵⁾를 주장하였다. 그는 근대건축의 원류를 새로운 재료에 의한 새로운 건축으로 규정하며 그 대표적 건축물로 수정궁(1851)²⁶⁾을 들고 있다.



<그림 5> Crystal Palace, Joseph Paxton, 1851
힐버자이머는 근대건축의 원류를 새로운 재료에 의한 새로운 건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최초의 건물로 수정궁을 제시하고 있다.

3.3. 건축적 전개

근대건축의 형태생성의 관점은 선례나 기존의 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부각된 물질성 자체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기존의 장식적, 양식적 건축으로부터 일탈하기 위해 기술적인 성과를 내면화한 새로운 형태의 제시를 의도하였다.²⁰⁾ 다음은 근대건축이론의 대표적 저술자인 힐버자이머와 러시아 구성주의의 즉물적 사고를 고찰한 것이다.

(1) Ludwig Hilberseimer의 근대건축에 관한 즉물적 사고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 1885-1967)²¹⁾는 근대건축의 발생과 전개를 새로운 재료²²⁾에 의한 새로운 구조와 그에 따른 형태의 양식적 전개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물론적 사관으로 서술한 그의 저서 「근대건축의 역사(Contemporary

(2) 러시아 구성주의의 즉물적 사고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에게 예술가란 '물질을 인공적인 대상으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그 물질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건설자이며,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이자 감독자'이기도 하였다. 러시아 예술가들에게 구성이란 변증법적인 조형방식이었다. 예술의 낡은 인습을 깨뜨리려 했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은 실재를 재현하고 해석하는 부르조아적 사고방식을 깨려고 하였다. 이 작가들이 제안한 것은 물질적 생산방식이 사회, 정치, 지적 과정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논점과 일치하였는데, 구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의 유물론적 노선이 물질의 새로운 형식과 구조를 드러내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물건들을 객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신비주의는 사라지고, 대신 물질의 조각이 부상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은 몇 가지 형

20) 최아사, 앞의 책, 1999, p.152

21) 힐버자이머는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에서 태어났다. 그는 칼스루에 공과대학에서 듀름(J. W. Durrm)의 지도를 받으면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그가 건축사를 건설예술의 역사로 해석하는 방법은 힐버자이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밖에도 그는 모리스(Morris), 크로포트킨(Kropotkin), 테세노우(Tessenow), 가르니에(Garnier), 무테지우스(Muthesius), 펠치히(Poelzig)의 공업건축, 미스 반 데 로에(Mies)의 건축사상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미스는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힐버자이머를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으로 초빙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11월 그룹'에 참가하였으며, 베를린 다다운동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그는 건축가, 비평가, 저자, 교사, 활동하며 근대건축의 이론적 기반을 명료하게 정리했으며, 「신즉물주의(die neue Sachlichkeit)」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Ludwig Hilberseimer, 앞의 책 1996, p.254

22) 근대건축의 새로운 재료는 자연적인 기존의 것과는 달리 공업적으로 치환된 재료로서 재료자체가 갖는 기능적, 물리적 속성을 통해 고전건축의 전통어휘를 직설적으로 변안하는 양상으로 적용되었다.

23)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고는 데카르트의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원론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24) Ludwig Hilberseimer, 윤재희 외역, 근대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6, pp.8-16

25) 힐버자이머는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도공, 직물공, 금세공사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상적인 구조와 형태에 따른 솔직성과 아이덴티티에 두고 있다.

26) 이에 대해 힐버자이머는 「석조건축의 특징인 빛과 그들의 대조는 끝나고 그늘없는 밝은 건물이 창조되었다. 공업시대가 건축에 미친 심오한 영향이 극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공업이 제공하는 수단을 사용한 공업시대의 최초의 건축적 표현이었다.」라고 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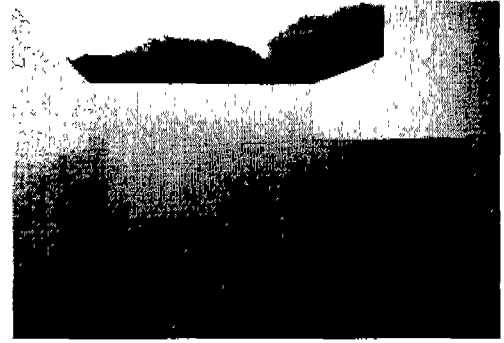
Hilberseimer, 앞의 책, p.20

식주의적 방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끌어 들였다. 구성주의자들의 변증법적 창조과정은 텍토닉(tectonic)과 팩투라(factura)의 종합으로 구체화되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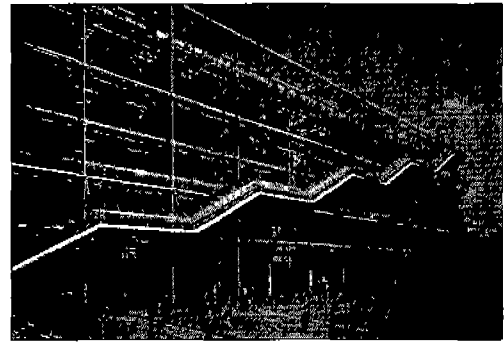
<그림 6> 타롤린,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 1920

구성주의자들은 모든 대상을 예술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며 환상 대신에 현실성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재료와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림 7> Gaspar House, Campo Baeza, 1988

미니멀건축은 재료의 구축적 가능성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이는 회화에서의 추상적 단순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니멀 건축에서는 그림과 배경 Picture & Ground의 회화적 기법을 공간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바에자의 가스파 하우스에서는 구축된 벽과 공간이 나무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위한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Pompidou Center, Renzo Piano & Richard Rogers, 1977

로저스의 폰피두센터는 재료의 물질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예로서, 벽의 존재는 투명성의 비물질적으로 존재하며, 미니멀 건축과는 상반된 표현의 즉물성을 보여준다.

4. 현대건축양식에서의 즉물적 표현

4.1. 즉물성에 의한 표현양상

이상과 같은 고찰은 현대건축에서는 주로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한 즉물적 표현과 재료의 물성을 순수하게 수용하는 즉물적 표현 등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축에서 재료의 물질성을 극대화하여 구조 및 형태의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은 공학건축의 전통을 수용하는 건축집단과 하이테크의 표현을 원리로 하는 건축집단에서 보여진다. 또한 재료의 물질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으로는 미니멀리즘 계열의 건축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다.

50년대 이후 추상표현주의의 과도한 표현에 대하여 미니멀 아트가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미니멀 건축은 70년대 이후 과도한 형태표현의 반작용으로 재료의 물리적 표현성 즉, 즉물성을 강조한다. 이는 형태의 물질적 특성 즉, 재료의 물성, 질감, 표현의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건물 표피에 대한 관심을 그 특성으로 한다. 미니멀 작품들은 건축재료의 특성을 공유하고, 표피의 재료와 질감, 표면, 구조적 개성, 반사, 색채, 형태, 무게와 같은 재료의 특성을 강조한다.²⁸⁾

미니멀리즘 건축이 찾고자 했던 매개적 최소성을 재료가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상태인 물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은 미니멀리즘 건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물성은 재료가 축조과정을 거쳐 하나의 건축물로 발전하기 이전의 상태인 본래의 물리성을 일컫는다. 미니멀리즘 건축은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최대공약수개념으로서 미니멀 이미지를 찾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미니멀 이미지는 최종결과물에 해당되는 형태에 있지 않고 그러한 형태를 있게 해주는 재료의 물성에 있다.²⁹⁾

4.2. 물질/비물질의 대립구도에 따른 즉물성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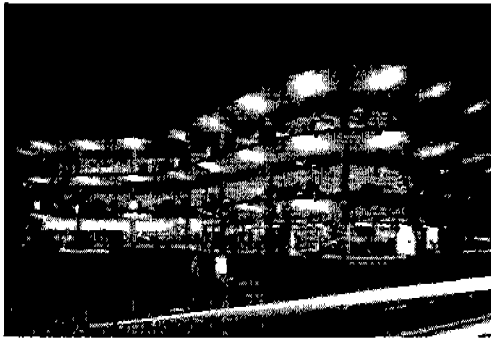
재료의 물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형태는 지각적 차원에서 물질적 표현과 비물질적 표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두 경우 모두 재료의 물리적 속성 즉, 물성에 의한 즉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하다. 지각

27)이선영, http://bc.centerworld.net/art/onlineclass/cyber_lecture/windowonart/mai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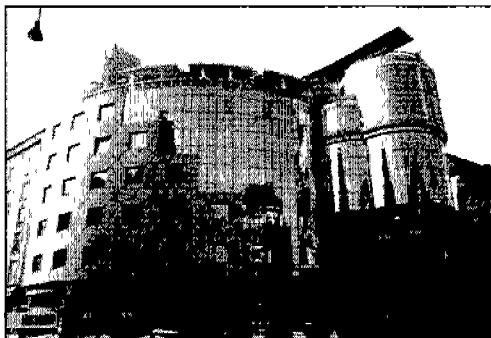
28)김상균, 현대건축의 미니멀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8, p.86

29)배준현,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 pp.170-171

적 차원에서의 인식 가능·불가능에 따라서, 지각되지 않을 경우를 비물질적 표현³⁰⁾이라 한다. 이는 건축표현의 투명성³¹⁾과 관련된다. 결국, 표현의 물질/비물질적 구분은 재료의 본질적 물성에 따르면 무의미한 것이 되며, 건축공간 내/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의 수용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표현된다. 그 대상을 수용할 경우는 빛의 투과와 반사에 따라 스스로는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어 비물질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물질적 표현은 비물질적 표현의 상대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비물질적 표현 재료 이외의 모든 재료가 적용되지만, 즉물성을 고려할 때, 질감과 같이 재료의 본질적 특성이 순수하게 표현될 경우를 말한다.



<그림 9> Willis Faber and Dumas Offices, Norman Foster, 1975
비물질적 표현, 빛의 투과에 따른 투명성, 투명유리



<그림 10> Haas House, Hans Hollein, 1987-1990
비물질적 표현, 빛의 반사에 따른 투명성, 반사유리, 매끈한 금속재료

30) 비물질성과 관련된 투명성을 가진 재료는 빛의 투과와 반사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재료는 투명유리와 같이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안되는 재료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재료는 반사유리나 매끈한 표면을 가진 금속재료 등과 같이 재료 자체는 불투명하지만 사물을 반사시켜 표면에 수용하므로써 스스로의 실체는 인식이 안되는 재료이다.

31) 폴린 로우는 투명성을 현상적 투명성과 가시적 투명성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인식대상의 일상적 측면과 내재된 다른 측면을 수용하는 것으로 공간적 투명성으로 해석되며, 가시적 투명성은 내·외부를 경계짓는 벽의 개념으로 재료적 투명성으로 해석된다. 윤성훈, 현대건축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p.7

5. 결론

건축형태 표현에 있어서 즉물성은 건축재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축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건축형태의 구조적 측면에서 재료의 역학적 속성과 형태적 측면에서 표현적 속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건축재료의 물질적 특성에 따른 즉물적 표현은 산업혁명 이후 발명된 새로운 재료 즉, 철과 유리의 건축적 적용에 의해 대두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재료에 의한 새로운 형태는 건축외적인 사회환경의 반영을 추구하였으며, 시대정신의 구현방법으로 적극 수용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바로 근대의 '새로운' 정신과 결부되어 근대건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근대건축의 단순한 형태는 추상미술에서의 영향 이외에 재료에 대한 솔직한 태도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료를 다루는 태도의 솔직성 때문에 형태 자체도 순수한 입방체의 형태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의 유희적인 표현을 주도했던 양식들은 근대건축이 추구했던 건축의 본질에 대한 사고를 배제했기 때문에 단명하고 말았다. 이는 최근 미니멀리즘적 건축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재료의 즉물적 표현을 시도하는 경향 가운데 공학기술의 하이테크적 표현을 목표로하는 계열은 미니멀건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슬릭한 기계적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재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료의 물질적 특성의 표현하려는 의지인 즉물성에 있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표현은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대건축의 흐름 가운데 최근의 fold이론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최대로 이용하는 공학적 배경으로 그 형태의 극단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근식 편저, 유물론적 역사이론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2. 하계창 편저, 미학의 제문제, 원광대학교출판부, 1994
3. P. M. Churchland, 석봉래 역, 물질과 의식, 서광사, 1992
4. v. D. J. Schulz, 이경직 옮김, 플라톤의 물질문제, 서광사, 2000
5. G. Bateson, 홍동선 역, 마음과 물질의 대화, 고려원미디어, 1993
6. R. Poggioli,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1998
7. M. Heidegger, 오병남 외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전사, 1998
8. 森信成, 민해철 역, 현대유물론의 기본과제, 거름, 1986
9. G. W. Hegel, 두행숙 역, 헤겔미학III, 나남출판, 1998
10. V. C. Aldrich, 오병남 역, 예술철학, 종로서적, 1985
11. R. Banham, 윤재희 외역, 제1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 세진사, 1999
12. 井上充夫, 임영배 역, 건축미론, 도서출판국제, 1994
13. L. Hilberseimer, 윤재희 외역, 근대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6
14. Aurora Cuito, Minimalist interiors, Kliczkowski, 2000
15. David Batchelor, Minimalism, Cambridge Univ. Press, 1997

16. James Meyer, Minimalism, Phaidon, 2000
17. Francisco Asensio Cerver, The Architecture of Minimalism, Hearst Books International, 1997
18. Colin Rowe, Transparency, Birkhäuser, 1997
19. Samsung Fashion Institute, <http://www.sfi.co.kr>, 1997
20. Alvaro Siza, GA Document Extra 11,
21. Barragan, The Complete Works, Thames and Hudson, 1996
22. Peter Testa, Alvaro Siza, Birkhäuser, 1996
23. Campo Baeza, Contemporary World Architects, Rockport, 1997
24. 박영욱,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25. 장엽, 알렉산더 카놀트의 신즉물주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26. 진임선, 신즉물주의 회화에 나타난 인간상에 관한 연구, 1999,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7. 최아사, 건축형태생성에 내재된 구조적 사고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9
28. 김태경, 건축표현에 있어서 즉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1991
29. 김상균, 현대건축의 미니멀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1998,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30. 윤성훈, 현대건축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접수 : 2001. 2. 6>